

제 8 장 결론 및 정책건의

1. 결론

- 감포항 연안항 개발 지정에 따른 경제적 타당성을 사회적 할인율 5.5%를 전제하여 분석한 결과 제2안과 제3안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
 - 제 2안의 경우 비용/편익비(BCR)가 1.474이며 내부수익율(IRR)은 9.01%임
 - 제 3안의 경우 비용/편익비(BCR)가 1.164이며 내부수익율(IRR)은 6.80%임
- 본 감포항을 개발함으로써 얻어지는 간접편익과 기대되는 정성적인 개발 효과 측면까지 고려하면 연안항 개발의 타당성은 있다고 판단됨
- 감포항은 1995년 국가어항으로 지정되기 전까지 연안항의 기능을 수행하였으며 50년대 ~ 70년대까지 대일 수산물 무역항의 기능도 담당하였을 정도로 연안항으로서 기본 여건을 보유하고 있음
- 또한 감포항의 배후권인 경주시는 경상북도에서 가장 많은 관광객을 유인하고 있고 풍부한 문화 및 역사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서 증가하는 해양관광객 추이를 감안할 때 연안항 개발을 통한 해양관광 거점으로 성장이 가능하며, 지역 수산업, 어업관련 산업 등의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됨
- 따라서, 감포항은 급증하는 해양관광 수요에 대응하는 관광특화 연안항 기능 및 적정 수준의 연안여객 및 화물수송 기능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어 개발의 가치는 충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감포항 연안항 지정은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

2. 정책건의

- 현재 감포항은 국가어항이며 연안항 지정을 위해서는 항만기본계획 변경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해양수산부와 긴밀한 협조체계가 구축되어야 함
- 또한,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경주시의 적극적인 협의체계 구축이 필요하며, 사업진행시 개발 특성상 대규모의 골재가 필요하고 제2안의 경우 준설토 처리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사업대상지 인근의 골재원 확보 및 준설토 처리 방안을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
- 제2안의 경우 사업대상지내에 여러 건의 어업권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지역 어촌계 및 관련 어민들과 협의하여 어업권 보상 문제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 행정적인 준비가 필요함

지방관리 연안항 지정을 위한 입지선정 및 타당성조사 용역

- 감포항은 해양관광에 특화된 연안항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 관광자산을 잘 활용하고 동시에 열악한 감포읍 중심가의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각종 기반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며, 사업대상지로의 진입도로 확장과 상·하수도, 전기·통신 설비 구축을 위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
- 또한, 감포항은 경주시의 관문을 표방하기 때문에 항만의 인지도 및 위상 제고를 위해 「경주 감포항」으로 항명 변경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